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 평준화 정책 중간보고 내용】

나. 안양시(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 포함)

1) 중등학교 학교수 및 학생수 변화

○ 안양시 권역에 포함되는 네 지역(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총35개교이며 학급수는 1028학급, 전체 중학생의 총수는 46,646명이다. 교원수는 1735명이다(<표1,2>참고).

○ 고등학교의 경우 안양이 18개교로 가장 많으며 군포 7개교, 과천 4개교 및 의왕 3개교이다. 전체 학급수는 1043학급이며 학생수는 50280명이다. 이 지역의 전체 고등학생수는 총중학생수 46,646명보다 오히려 3634명이 더 많다. 즉 전입, 전출인구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용능력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3> 참고).

○ 중학교의 전체 교원수는 안양교육청 지역이 1,131명이며, 군포교육청 지역은 604명으로 전체는 1,735명이다. 고등학교의 교원은 각각 1,459명과 686명으로 2,145명이다.

○ <표1> 중학교 현황(안양교육청)

구분	학교별			학급별			학생별			교원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초등학교	37	-	37	1458	-	1458	62227	-	62227	1730	-	1730	
중학교	18	4	22	580	90	670	26252	4134	30386	974	157	1131	
고등학교	인문	6	9	15	192	277	469	9410	13757	23167	391	548	939
	실업	4	3	7	150	84	234	7164	4787	11951	332	188	520
	계	10	12	22	342	361	703	16574	18544	35118	723	736	1459
특수학교	-	-	-	-	-	-	-	-	-	-	-	-	
사회교육시설	-	1	1	-	8	8	-	300	300	-	14	14	

○ <표2> 중학교 현황(군포교육청)

구분	학교별			학급별			학생별			교원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초등학교	27	-	27	912	-	912	39481	-	39481	1057	-	1057	
중학교	13	-	13	358	-	358	16260	-	16260	604	-	604	
고등학교	인문	5	3	8	176	91	267	8122	4139	12261	359	181	540
	실업	2	-	2	66	-	66	2901	-	2901	146	-	146
	계	7	3	10	242	91	333	11023	4139	15162	505	181	686
특수학교	-	-	-	-	-	-	-	-	-	-	-	-	-
사회교육시설	-	-	-	-	-	-	-	-	-	-	-	-	-

○ <표3> 각 지역별 고등학교 현황

지역	학교수	학급수
안양	18	595
과천	4	115
의왕	3	97
군포	7	236
전체	32	1043

○ 초·중·고등학생의 전입,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출자보다 전입자의 수가 많은 경우는 안양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유일하다. 이 경우에도 그 수는 12명으로 전입과 전출자의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가 전출자가 많으며 그 다음이 중학교 수준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출자와 전입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82명이었다.

<표4>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전출,전입 현황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전출	전입	증감	전출	전입	증감	전출	전입	증감
안양시	5685	5063	-622	852	706	-146	201	213	12
과천시	821	497	-324	129	79	-50	77	54	-23
군포	3007	2566	-441	414	315	-99	120	74	-46
의왕시	1289	954	-335	172	138	-34	67	42	-25
전체	10,802	9,080	-1,722	1,567	1,238	-329	465	383	-82

2)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

① 안양·과천

○ 안양과 과천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는 전체 21개교이며 고등학교의 수 역시 21개교이다. 중학교의 경우 안양시 만안구에 절반인 10개교가 모여 있으며 동안구는 9개교이다. 과천의 경우 2개교에 불과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안양시 만안구에 10개교가 모여 있으며 동안구에 7개교이며 과천시의 경우에는 4개교가 있다.

○ 과천시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독자적인 학군으로 구성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표5> 안양·과천 학교분포 현황

안양시				과천시	
만안구		동안구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기(범계)	안양(박달2)	관양(관양)	관악정산(달안)	과천중(희망길)	과천(꿈보람)
신안(안양9)	안양공(안양3)	관양여(관양2)	동안(평안)	문원중(청사로)	중앙(홍촌내)
안양(석수3)	근명여정산(안양5)	귀인(귀인)	부흥(부흥)		과천여(희망길)
안양부흥(부흥)	신성(안양6)	대안(호계)	평촌(호계)		과천외(희망길)
안양서여(안양9)	안양여(안양2)	대안여(호계)	평촌공(호계)		
안양서여(안양9)	안양여상(안양3)	범계(호계)	평촌정산(관양)		
근명여(안양5)	안양예(안양3)	부림(부림)	백영(평촌)		
성문여(안양8)	안양외(안양3)	평촌(평촌)			
신성(안양6)	양명(안양2)	호계(호계2)			
안양여(안양2)	양명여(안양2)				
10개교	10개교	9개교	7개교	2개교	4개교

<표6> 안양시 학교 현황 및 주소

학교명	설립 유형	공학 여부	입학 정원	학교 유형	주소
관악정산고	공립	공학	552	실업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
근명여정산고	사립	여자	552	실업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
동안고	공립	공학	552	일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8-3
백영고	사립	공학	552	일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2
부흥고	공립	공학	552	일반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2-2
성문여고	사립	여자	460	일반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산117-1
신성고	사립	남자	552	일반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68
안양고	공립	공학	552	일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44-3
안양공고	공립	공학	690	실업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881-3
안양여고	사립	여자	276	일반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56-8
안양여상고	사립	여자	460	실업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41-1
안양예술고	사립	공학	360	특목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산 42-1
안양외고	사립	공학	360	특목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산41-1
양명고	사립	여자	552	일반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67
양명여고	사립	여자	552	일반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산 21-10
평촌고	공립	공학	552	일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4
평촌공고	공립	공학	460	실업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05
평촌정산고	공립	공학	552	실업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87-2
전체 18개교(일반계:10개교, 실업계:6개교, 특목고:2개교), 입학정원:9138명,					

<표7> 과천시 학교 현황 및 주소

학교명	설립 유형	공학 여부	입학 정원	학교 유형	주소
과천고	공립	공학	504	일반	과천시 별양동 5번지
과천여고	사립	여자	420	일반	과천시 중앙동 11번지
과천외고	사립	공학	495	특목	과천시 중앙동 11번지
과천중앙고	공립	공학	588	일반	과천시
전체 4개교(일반계:3개교, 실업계:0개교, 특목고:1개교), 입학정원:2007명,					

③ 군포·의왕

○ 군포시와 의왕시의 경우 중학교가 13개교이며 고등학교는 11개교이다. 군포시의 중학교는 9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이며 의왕시에는 각각 4개교씩 있다.

<표8> 군포·의왕시 학교분포 현황

군포시		의왕시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곡란(산본)	군포정산(산본)	고천(오전)	백운(내손)
군포(당)	산본(산본)	백운(내손2)	중앙(홍촌내)
궁내(산본)	산본공(산본)	의왕(오전)	우성(오전)
금정(금정)	수리(산본)	의왕부곡(월암)	정원(고천)
도장(산본)	용호(당)		
산본(산본)	홍진(금정)		
수리(산본)	군포(금정)		
용호(당)			
홍진(금정)			
9개교	7개교	4개교	4개교

<표9> 군포시 학교 현황 및 주소

학교명	설립 유형	공학 여부	입학 정원	학교 유형	주소
군포고	사립	공학	420	일반	군포시 금정동 870-4
군포정산고	공립	공학	444	실업	군포시 산본동 1149-6
산본고	공립	공학	504	일반	군포시 산본동1090
산본공고	공립	공학	420	실업	군포시 산본동 1146-14
수리고	공립	공학	504	일반	군포시 산본동 1152-4
용호고	공립	공학	504	일반	군포시 당동 1152-4
홍진고	공립	공학	504	일반	군포시 금정동 875-7
전체 7개교(일반계:5개교, 실업계:2개교, 특목고:0개교), 입학정원:3360명,					

<표10> 의왕시 학교 현황 및 주소

학교명	설립 유형	공학 여부	입학 정원	학교 유형	주소
백운고	공립	공학	504	일반	의왕시 내손동 산 49-4
우성고	사립	공학	504	일반	의왕시 오전동 393-4
정원고	사립	공학	495	일반/ 실업	의왕시 고천동 산 21-2
전체 3개교(일반계:3개교, 실업계:1개교, 특목고:0개교), 입학정원:1386명,					

○ 행정구역별 학생수 변화 전망

○ 향후 3-4년 내에는 이러한 중·고등학교 학생수의 조화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 현재 초등학교 학생수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2000년 현재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학교가 3년과정이므로 현재의 초등학생수를 2로 나누어 보면 대략적인 학생인구의 증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진학률이 완전취학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도탈락자의 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3-4년 후에는 전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학생수가 중학교 학생수보다 약 1930명 정도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군포지역과 의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안양과 과천은 고등학생 수용 능력이 충분한 반면에 군포는 3190명, 의왕은 150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참고).

<표11> 향후 학생수 변동 추정

지역	초등학생수 (A*2)	A	고등학교 학생수(B)	A-B
안양	56154	28077	29108	-1031
과천	7017	3509	5247	-1738
의왕	11726	5863	4354	1509
군포	27898	13949	10759	3190
전체	102795	51398	49468	1930

○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학생수 변화양상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 현재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학교의 학년별 학생수와 총학생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12> 지역별 중학교 학생수 변화 양상(99년 기준)

행정구역	설립 유형	학교명	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안양시	공립	관양여중	615	569	558	1742
	공립	관양중	548	580	540	1668
	공립	귀인중	449	489	364	1302
	공립	대안여중	364	348	353	1065
	공립	대안중	358	354	355	1067
	공립	범계중	555	611	452	1618
	공립	부림중	601	593	556	1750
	공립	부안중	408	432	559	1399
	공립	신기중	550	559	617	1726
	공립	신안중	441	490	481	1412
	공립	안양부흥중	437	575	526	1538
	공립	안양서여중	449	415	462	1326
	공립	안양서중	440	480	476	1396
	공립	안양중	400	427	523	1350
	공립	평촌중	606	607	644	1857
	공립	호계중	460	544	530	1534
	사립	근명여중	320	318	323	961
	사립	성문여중	315	322	321	958
	사립	신성중	444	476	464	1384
사립	안양여중	269	306	310	885	
과천시	공립	문원중	508	444	447	1399
	공립	과천중	479	482	499	1460
군포시	공립	곡란중	480	388	402	1270
	공립	군포중	292	388	501	1181
	공립	궁내중	434	378	349	1161
	공립	금정중	586	557	565	1708
	공립	도장중	518	456	472	1446
	공립	산본중	499	562	533	1594
	공립	수리중	347	327	310	984
	공립	용호중	399	336	85	820
	공립	홍진중	473	527	418	1418
의왕시	공립	고천중	271	247	247	765
	공립	백운중	633	670	580	1883
	공립	의왕부곡중	326	316	274	916
	공립	의왕중	317	262	218	797
전체			15,591	15,835	15,314	46,740

<표13> 고등학교 진학자수 추정

학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진학자수	15835	15591	15867	16609	16536	16530	18567	18258	-

4)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분석

○ 설문조사 결과

안양·과천·군포·의왕지역 학부모, 학생, 교원 및 교육청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준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반응자 분포

-대상

학부모	4522명	57.6%
학생	2825명	36.0%
교원	464명	5.9%
교육청	36	0.5%
전체	7847	100%

-지역

과천시	407명	5.5%
안양시	4081명	55.5%
의왕시	902명	12.3%
군포시	1775명	24.1%
기타	188	2.6%
전체	7353	100%

- ① 문항1: 중학교 졸업자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대상자별 반응

구분	통학거리	교육여건	학교전통	설립유형	교육과정	내신성적	기타
학부모	20.9	46.2	4.2	0.6	8.0	19.2	1.0
학생	24.8	56.0	4.2	0.4	6.9	7.5	0.1
교원	23.3	58.3	3.0	0.2	10.2	4.8	0.2
기타	16.7	61.1	8.3	-	13.9	-	-
전체	23.3	52.6	4.2	0.5	7.5	11.5	0.4

-지역별 반응

구분	통학거리	교육여건	학교전통	설립유형	교육과정	내신성적	기타
안양	26.3	46.9	5.7	1.0	7.4	12.2	0.5
과천	24.8	51.6	3.9	0.4	7.2	11.7	0.4
의왕	18.6	55.3	4.1	0.3	8.1	12.7	0.8
군포	20.7	56.9	3.7	0.4	7.5	10.4	0.4
기타	23.0	50.3	5.9	0.5	11.2	9.1	-
전체	23.1	53.0	4.0	0.4	7.5	11.5	0.5

1

- ② 문항2:2002학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대학입시제도에 평준화지역의 고등학생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별 반응

구분	평준화 유리	비평준화 유리	차이 없음	모르겠음
학부모	52.2	21.2	10.9	15.7
학생	51.3	18.6	15.3	14.7
교원	59.4	16.2	14.8	9.6
교육청	27.8	33.3	19.4	19.4
전체	52.0	19.5	13.7	14.8

-지역별 반응

구분	평준화 유리	비평준화 유리	차이 없음	모르겠음
안양	51.4	22.3	9.9	16.4
과천	53.1	19.0	13.6	14.3
의왕	51.3	18.9	13.6	16.2
군포	50.5	20.1	14.4	14.9
기타	58.3	17.1	10.7	13.9
전체	52.3	19.4	13.5	14.8

- ③ 문항3: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 경쟁하는 고교입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제도가 중고등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별 반응

구분	예	아니오
학부모	32.4	67.6
학생	35.5	64.5
교원	20.7	79.3
교육청	66.7	33.3
전체	33.7	66.3

-지역별 반응

구분	예	아니오
안양	31.1	68.9
과천	32.2	67.8
의왕	38.4	61.6
군포	33.8	66.2
기타	32.1	67.9
전체	33.3	66.7

- ④ 문항4: 경기도 안양·과천·의왕·군포시는 현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실시 지역이 아닙니다.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별 반응

구분	평준화 도입 찬성	현행 비평준화 유지	잘모름
학부모	69.9	23.6	6.5
학생	77.7	19.1	3.2
교원	80.3	18.0	1.7
교육청	40.0	60.0	-
전체	74.9	20.9	4.3

-지역별 반응

구분	평준화 도입 찬성	현행 비평준화 유지	잘 모름
안양	72.6	23.1	4.2
과천	76.0	19.8	4.1
의왕	74.1	21.2	4.7
군포	75.1	20.1	4.8
기타	71.5	26.3	2.2
전체	75.3	20.4	4.3

○ 전문가협의회 결과

-평준화 찬성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패러다임은 빨리 사회에 나가서 기술을 서먹게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정보화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창의성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은 문제가 있다. 중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실정이다. 중학교 입학 단계에서부터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얽매이고 내신관리를 위해 치열한 주입식 교육이 시작된다.

평준화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다. 첫째는 성적 하향화의 문제인데, 수원지역 우수학생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월성교육과 평준화는 갈등관계가 아니다. 둘째, 학교선택권의 문제이다. 사실 성적 기준 상위 5%만이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될 뿐 나머지는 교사에 의해 학교가 결정된다. 셋째, 학교붕괴의 원인을 평준화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 학교붕괴의 원인은 공교육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총체적인 교육의 문제이다. 그것이 평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란 없다. 아울러 변화하는 대입제도가 현재의 비평준화 제도와는 모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신반영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평준화가 오히려 정확하게 학생들의 능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논리를 따져야 한다. 너무 현실적인 문제, 이를테면 통학거리에만 몰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제도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선적인 준거로 삼아야 한다.

-평준화 반대론: 비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학생들은 입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행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비평준화가 동질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아울러 안양지역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겠는가의 문제가 있다. 원하는 학교에 갈

수없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만약 평준화를 실시한다고 하면 광역단위로 실시하고 부분적인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안양과 군포 교육청으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과천학부모가 군포와 의왕으로 자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학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여 수업의 질저하가 명백하다. 비평준화 지역의 중학교에서 경쟁의식이 더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친구들 사이에 서로 돕는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평준화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타지역으로 배정되었을 때는 더 큰 불만을 갖는다. 만약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런 지역으로 간다면 문제는 덜 심각하지만 평준화를 도입해서 추첨에 의해 배정받는데 거리가 먼 지역으로 결정한다면 많은 불만이 생겨날 것이다.